

수준 높은 안전문화로 우수 의약품 생산

한화제약(주)

한화제약(주)은 1976년 창립된 이래 계속해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온 치료의약품개발 전문기업이다. 한화제약(주)은 최근 제2의 도약을 맞이하고 있다. 2005년에는 스피드경영을 위해 웹기반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했고, 2008년에는 cGMP(미국우수약품관리기준)공정을 준공해 신규시장 개척에도 힘을 기울였다. 특히 최근에는 R&D투자확대,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 강화,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신약개발 등 다양한 활동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을 향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한화제약(주)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직원들의 안전을 기치로 한 '한화가족' 경영마인드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임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화가족'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안전활동을 펴고 있는 한화제약(주)을 찾아가 봤다.

취재 · 사진 | 현천일 기자(safehc@safety.or.kr)



한화가족 경영마인드가 안전의 파수꾼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안전활동을 보며 참 화기에애하고 활력이 넘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곳저곳을 둘러본 후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곳 임직원 모두에게는 '안전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며,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안전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는 의식이 깔려있다. 그래서 CEO를 비롯해 임직원 모두가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한다. 이에 안전활동을 할 때도 경영진들은 솔선수범을 보이며, 관리자·근로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사랑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런 안전경영 방침은 창립 이래로 꾸준히 이어져 온 '가족경영', '협력경영', '미래경영' 에서 출발하고 있다.

'가족경영'은 직원 모두가 가족을 대할 때처럼 '서로 믿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협력경영'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외 파트너들뿐 아니라 국내 협력사들과 협력해 나가는 '서로 도우며'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래경영'은 미래발전을 위한 투자와 준비를 위해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거나 생산노하우를 익히며 발전해가는 '앞서가는'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경영방침에 따라 모든 직원들이 '서로 믿고 도우며 앞서가는 한화가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선진안전 System 구축으로 안전활동 전개

한화가족' 의식은 안전활동에 그대로 녹아 있다. 이곳에서는 원료·자재입고 → 칭량 → 과립·건조 → 타정·충전 → 포장 → 출하 등의 순으로 공정이 이뤄진다.

한화제약(주)에서는 먼저 공정별 위험요소를 파악해 나갔다. 우선 칭량 시에는 분진이 발생해 호흡기 질환과 시력손상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타정·충전작업을 할 때는 기계조작에 따른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포장공정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상 위험, 입고·출하 시에는 지게차로 인한 협착·충돌·낙하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의약품을 생산할 때도 온도, 습도, 압력 등의 차이가 근로자에



계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파악했다.

이렇게 공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공정별로 맞춤형 보호구를 지급하고, 기계설비를 밀폐시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기계차 운전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케 했고, '중앙통제실'을 설치해 온도, 습도, 차압관리를 실시간 관리·점검해 이상이 발생할 시 관리자가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최근에는 'HSE System'을 구축해 인적요소까지 포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전 직원들에게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재난·재해발생 시 안전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 직원들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익혀두게 하고 있다.

자발적 안전활동 유도

이곳에서는 직원들의 안전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사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사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사합동 제거반'을 운영해 불안정한 행동·상태를 개선하고 있다. 또 '근로자 제안제도 및 포상제도'를 시행해 직원들이 안전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 직원의 건강증진 및 친목도모를 위해 'CEO와 함께 하는 테니스클럽', '부서별, 직급별, 연령별 하모니 모임', '등산,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곳의 안전활동 중 특이점은 직원들의 안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까지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함께 소모임, 극 관람 등 문화체험을 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고령자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여는 등 직원들 스스로가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기업 문화가 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원들이 회사의 안전활동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친환경기업 이미지로 글로벌기업 발돋움

안전활동의 바탕이 된 '한화가족' 경영마인드는 환경부분까지도 퍼져나가고 있다.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일은 회사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켜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최적화된 오·폐수 처리시설을 마련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깨끗하게 산업수출을 배출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기업들을 통해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감을 얻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회사손실에 앞서 근로자에게 큰 불행임을 알고 노·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재해를 예방하는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이곳. 안전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회사발전에 앞서 자신의 발전이라는 직장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이곳. '한화가족'은 화학 우수의약품 생산하는 밑거름이다.

'사람 중심의 안전경영'을 펼치고 있는 한화제약(주)가 세계 제일의 의약품 생산업체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김 경 락 대표이사

우리는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저는 안전이 지켜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생활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생활처럼 실천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가 요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정신, 둘째는 건전한 직장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주의 정신입니다.

저희 한화제약(주)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신입사원에게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절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정신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선후배간 인간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 모두가 가족이라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 직원을 모두가 가족을 챙긴다는 책임감으로 사고 없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화가족'의 소중한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영역, 새로운 시장을 향해 끊임 없이 도전해 지역사회와 인류의 건강을 생각하는 100년 대계의 행복한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